

白翎島 말등遺蹟의 뼈유물 研究

崔三鎔 (연세대 박물관)

1. 머리말

백령도 말등 조개더미유적은 현 행정구획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위치한다. 1973년 처음 발견된 이 유적은 채집된 자갈돌 석기를 근거로 석기시대유적으로 알려졌고, 1981년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의 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말기 유적임이 밝혀졌다(崔夢龍 외 1982). 또한 이 유적은 1987년 재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崔夢龍 외 1999, 81쪽).

이 유적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낮은 구릉 말단부에 쌓인 조가비층으로 크기는 최소 50×15m²이며 부정형이다. 한 시굴 구덩이에서는 표토 60cm 아래에서 두께 약 150cm 가량의 조가비층이 확인되었는데, 아래로 갈수록 자갈이 드러나고 조가비층이 끝난 곳에서는 잔자갈과 모래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유적은 당시 해안에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생토층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시굴 구덩이의 깊이 160cm에서는 지름 약 60cm 정도의 숯과 검게 탄 둥근 자갈돌이 원형으로 덮혀 있는 불탄자리가 드러났다. 유물은 앞에 언급한 시굴 구덩이에서 각 부위의 빗살무늬토기 조각들과 빗살무늬토기 계통의 무늬없는토기 완형 1점, 굽개 2점 그리고 동물 뼈유물들이 나왔고, 잘려나간 조가비층 단면과 나머지 2개의 시굴 구덩이를 포함한 밭에서 빗살무늬토기, 간돌도끼와 자갈돌 석기 수십여점이 채집되었다(崔夢龍 외 1982).

여기에서 분석 대상이 된 뼈유물은¹⁾ 모두 7점으로 출토 상황은 다음과 같다. 어깨뼈 1점은 조가비층의 깊이 20cm, 등뼈 1점은 65cm, 뒤통뼈 1점은 90cm, 아가미뚜껑뼈 1점은 100cm 그리고 갈비뼈 3점은 각기 조가비층 20cm, 65cm, 90cm 깊이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마름질하고 다

1) 이 글은 서울대학교박물관이 1999년에 실시한 덕적군도 일대의 고고학적 학술조사 보고서인 『德積群島의 考古學的 調查研究』에 실렸던 것(崔夢龍 외, 1999, 91-102쪽)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말등 유적의 동물뼈 유물 연구를 맡겨주셨던 최몽룡 교수님과 신숙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듬어서 만든 연모나 치레거리는 없으며, 또한 이런 것들을 만들 재료로 쓰여 변형이 가해진 흔적이 남은 뼈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말등유적의 뼈유물을 관찰하는 가운데 다른 성격의 인위적인 흔적을 2점의 뼈대 절면에서 찾았다. 그것은 날카로운 석기를 사용하여 동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뼈에 이루어진 자른자국(cut marks)이다. 이 자른자국은 죽은 짐승의 분할 방법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또한 석기 사용의 직접 증거로서 다른 유적에 비하여 많이 나오는 말등유적 석기의 한 쓰임새를 짐작케 한다. 이는 또한 이 유적에서 드러난 이 짐승의 폐기 원인이 인간 행위의 결과임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동물뼈에 나타나는 자른자국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1970년대 Sample 이 동삼동 조개터미유적 연구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고(Sample, 1974 : 94), 1980년도 중·후반에 사천 구평리유적(최삼용, 1986 ; 한창균, 1993)과 상노대도 조개터미유적(최삼용, 1988)의 동물뼈유물을 대상으로 짐승잡이의 복원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말등 조개터미유적에서 나온 동물의 뼈대를 살펴보고, 그 표면에 나타나는 자른자국의 성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관찰된 뼈대와 동물의 종류

뼈들의 표면 보존 상태는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모두 뼈대의 부위 확인이 가능하며²⁾, 뒤팔뼈 1점, 등뼈 1점, 아가미뚜껑뼈³⁾ 1점은 동물의 종도 알 수 있다. 어깨뼈(肩胛骨)와 갈비뼈는 사슴이나 돼지 크기의 동물 뼈대이다.

1) 뒤팔뼈(ulna) - 돼지(Sus sp.)

뒤팔뼈는 돼지의 것으로 왼쪽 부분이다(사진 1c). 뼈의 크기와 앞팔뼈에 붙는 면의 상태로 보아 잡힐 당시 어린 돼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뼈대만으로는 멧돼지인지 집돼지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뒤팔뼈의 머리부분(olecranon)은 위쪽과 앞쪽 부분이 많이 깨져나간 상태이며, 몸통(diaphyse)의 윗부분은 안쪽면을 향하여 비스듬히 깨어져 끝은 가로날을 이루고 있다. 뼈의 표면, 특히 머리부분 한쪽에는 육식동물의 이빨자국이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사진 1c 오른쪽), 이것으로 보아 이 뼈의 머리부분이 깨어진 직접 원인은 개 따위의 육식동물에 의한 씹기였을 가능성이 짙다. 최대 길이는 90mm,

2) 뼈대의 우리말 이름은 손보기(1988)에 따른다.

3) 물고기 뼈의 감정에 도움을 주신 군산대학교 생물학과 이충렬 교수님과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의 이영덕 선생님께 감사드린다.